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

2021. 11. 10

박영호 연구위원

CONTENTS

I. 2021년은 퇴직연금 질적 성장의 원년

II. 퇴직연금 운용의 5가지 핵심 변화

1. 제도간, 금융업권간 수익률 격차 확대
 2.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
 3. TDF 및 ETF 투자의 고속 성장
 4. 글로벌 펀드 투자비중 확대
 5. IRP 전성시대 개막
-

III. 결론

< 요약 >

●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은 저축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 흐름과 더불어 자산배분 관점으로 진일보하는 질적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개인이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2020년, 2021년 통계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분석한 결과, 최근 퇴직연금 운용에서의 질적 변화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제도간, 금융업권간 수익률 격차 확대]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DC/IRP 5%대, DB 2% 미만, 증권업권 9.7%, 他업권 3%대
- ← 국내외 주식 강세장 형성 및 자산배분 변경(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 상승) 영향

②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

- DC/IRP 및 증권업권의 적립금, 올해 상반기말 전년대비 6%, 19%, 24% 증가
- IRP 계좌로 2020년 7.1조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5.7조원의 대규모 자금 순유입
- ← 퇴직연금 적립금과 함께 자금이 투자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는 계좌에 집중

③ [TDF 및 ETF 투자의 고속 성장]

- TDF의 퇴직연금 내 투자액: 2017년 3,036억원 → 2021년 3분기말 6.1조원
- ETF(상장지수펀드)의 퇴직연금 내 투자액: 2019년 1,836억원 → 2021년 1분기말 1.3조원 ← 투자 편의성, 변동성(위험) 관리, 자산배분 등에서의 장점 크게 어필

④ [글로벌 펀드 투자비중 확대]

- 글로벌 펀드 전체 및 해외자산 60% 이상 편입 펀드의 투자 비중 4년간 대폭 상승
- ← 국내 집중투자에서 지역별로 다변화된 투자자산 분산으로 자산배분 활성화 조짐

⑤ [IRP 전성시대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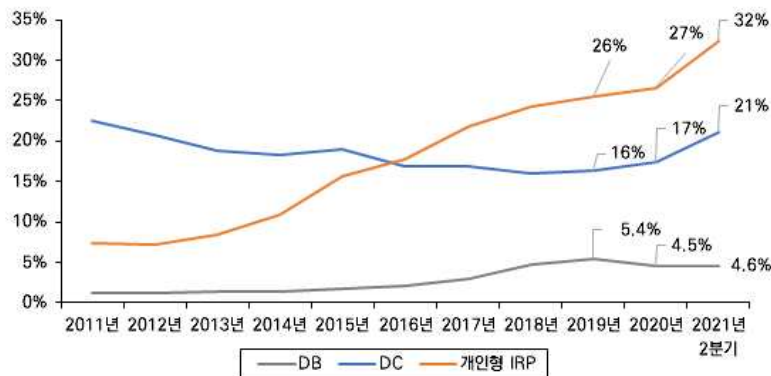
- IRP 전체 및 증권사 IRP 적립금이 최근 1년반 동안 각각 61%, 100% 증가
- 증권사 IRP로 올해 상반기 동안 2.2조원의 자금 순유입, 퇴직급여액 이전분 급증세
- ← 스스로의 노후 연금자산 축적 및 세제 혜택, 장기투자, 자산배분 관련 니즈 증가

● 퇴직연금 운용에서 TDF, ETF, 글로벌 펀드 등 투자 편의성, 변동성 관리, 자산배분에 유용한 장기투자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기관들은 안정적 장기 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 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I. 2021년은 퇴직연금 질적 성장의 원년

-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었음.
-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재원으로서 퇴직연금의 위상도 그만큼 커졌지만, 그 운용 수익률은 금리 하락세와 주식 시장 불안정에 따라 2010년대 전반으로 저조한 것이 커다란 과제임.
 - 특히 DC형 퇴직연금 및 IRP 등에서 근로자 개인은 그동안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던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을 지속해 왔으며, 국내의 경제 저성장과 저금리 상황에 대응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산배분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평가됨.
- 양적 성장에 걸맞지 않았던 퇴직연금의 지지부진한 운용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최근 1~2년간 다양한 투자 상품(실적배당상품)의 편입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되고, 운용자금이 금융투자 업권(증권사)으로 크게 유입되면서 자산배분 변경 시도가 본격화되는 새로운 질적 변화를 맞고 있음.

<도표 1> 퇴직연금별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이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최근 1~2년간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질적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5가지의 주요 이슈로 정리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II. 퇴직연금 운용의 5가지 핵심 변화

-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최근 2년간의 퇴직연금 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변화는 1) 제도(DB형과 DC형 퇴직연금/IRP) 간, 금융업권 간 수익률 격차 확대, 2) 금융투자로 더욱 쏠리는 자금흐름, 3) TDF, ETF 투자의 고속 성장, 4) 국내에서 글로벌로 투자지역 확대, 5) IRP 시장 고성장 등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제도간, 금융업권간 수익률 격차 확대

- [제도간 격차 확대] 최근 2년간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큰 폭으로 향상된 반면 DB(확정급여)형은 여전히 저조한 수익률에 머물면서 퇴직연금 간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음.

— 2020년 및 2021년 2분기말 1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DC형 및 IRP는 종전 2%대에서 3%대, 5%대로 뚜렷하게 향상된 반면, DB형은 2019년 이후 3년째 1.9%의 저수준에 고착돼 있음.

<도표 2> 퇴직연금별 1년 평균 수익률

(단위: %)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 2분기말
DB	원리금보장상품	2.1	1.7	1.5	1.5	1.8	1.7	1.6
	실적배당상품	2.7	1.4	5.5	-0.3	4.7	7.3	8.5
	- 편입 비중	1.8	2.0	3.0	4.8	5.4	4.5	4.6
	전체	2.1	1.7	1.6	1.5	1.9	1.9	1.9
DC*	원리금보장상품	2.4	1.9	1.6	1.7	2.1	1.9	1.7
	실적배당상품	2.3	-0.5	7.1	-5.5	6.0	13.6	18.5
	- 편입 비중	19.0	16.8	16.9	16.1	16.4	17.4	21.1
	전체	2.4	1.5	2.5	0.4	2.9	3.8	5.1
개인형 IRP*	원리금보장상품	1.9	1.5	1.2	1.3	1.7	1.5	1.3
	실적배당상품	1.2	-0.6	6.6	-5.4	6.4	12.9	19.6
	- 편입 비중	15.7	17.8	21.8	24.3	25.5	26.7	32.4
	전체	1.8	1.1	2.2	0.4	2.8	3.7	5.6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미포함(이하 동일)

- DC형 퇴직연금 및 IRP와 DB형 퇴직연금 간의 이 같은 수익률 격차 확대는 실적배당상품(투자 상품) 편입 비중의 차이에서 주로 좌우되고 있음.

- 2021년 2분기 현재 DC형과 IRP의 실적배당상품 1년 평균 수익률은 19% 내외인 반면 DB형의 경우 8.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DB형의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은 4.6%로, DC형(21%) 및 IRP(3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DB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도 2016년 이전 수준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지만 DC형 퇴직연금과 IRP를 합친 금액보다 총 적립금 규모가 크고 보수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음.

-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 상승은 운용 수익률 호조세와 더불어 이로 인한 자금 순유입 확대의 선순환에 힘입은 적립금(순자산)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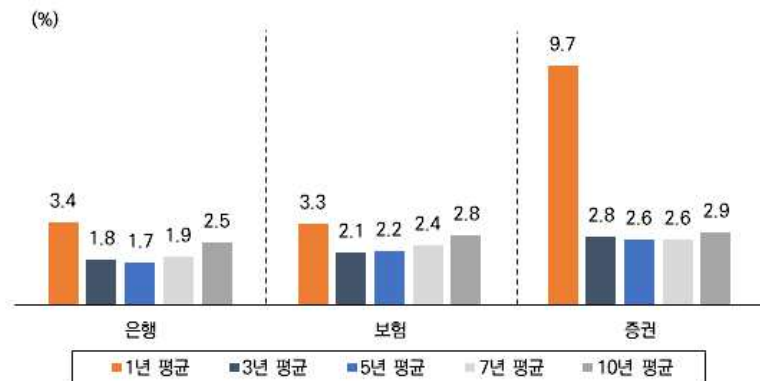
- 개인의 운용성교에 따라 연금자산이 달라지는 DC형 및 IRP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상품 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두 퇴직연금은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DB형과의 수익률 격차를 본격적으로 벌리고 있는 상황임.

◎ [금융업권간 격차 확대] DC형 퇴직연금과 IRP 시장에서 증권사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0%에 육박해 은행과 보험사의 2~4% 선을 압도하고 있음.

- 증권사의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운용 수익률은 3년에서 10년 치 장기 평균이 3% 미만에 머무르는 등 2019년까지는 은행 및 보험사와 투자성과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음.

- 금융투자업권인 증권사의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이 2019년 이전까지 他 업권과 차별화되지 못한 것은 2010년대 이후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 지속과 더불어 주식 등 위험자산의 글로벌 분산 등 자산배분에 실패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도표 3> 금융업권별 퇴직연금(DC/IRP) 운용 수익률(2021년 2분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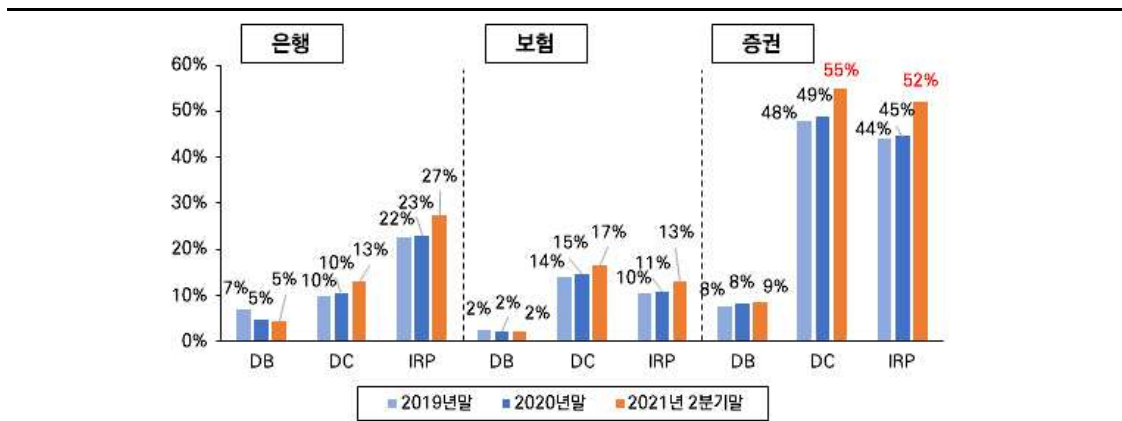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종전 추세와 달리 최근 1~2년 사이 증권사의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운용 수익률은 국내외 주식 및 자산가격 강세와 다양한 투자 상품군을 활용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의 성과에 힘입어 10%대 전후로 대폭 향상됐으며, 은행 및 보험사 대비 뚜렷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

◎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증권사 계좌의 운용 수익률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매개가능한 투자 상품군 다변화를 강점으로 한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운용이 주효하고 있기 때문임.

- 은행 및 보험사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의 IRP를 제외하면 2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증권사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은 2021년 2분기말 현재 50%를 넘어서 월등히 높은 수준(DC형 55%, IRP 52%)으로 운용되고 있음.
- 증권사의 DC형 퇴직연금 및 IRP에서의 2021년 2분기말 현재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은 2019년 및 2020년 수준 대비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데(<도표 4> 참조), 이는 최근 ETF(상장지수펀드), TDF(Target Date Fund), 글로벌 펀드, 상장리츠 등 투자 상품군의 다변화 및 시장 급성장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DC형 및 IRP와 달리 DB형 퇴직연금은 운용책임이 고용주에 있어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금융업권간 실적배당상품의 편입비중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도표 4>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IRP는 개인형 기준

◎ 2021년 2분기말 현재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은 금융업권 전체를 통틀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투

자 환경의 영향에 따라 자산배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기조로 판단됨.

- 증권사의 IRP 및 DC형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이 2019년 44~48%, 2020년 45~49%에서 2021년 2분기말 52~55%로 금융업권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으며, 은행과 보험사의 同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 역시 2021년의 상승폭이 종전 대비 두드러지고 있음.
- 코로나19를 계기로 심화된 저금리 기조와 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의 연장선으로, 올해 들어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 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변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판단됨.

2.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

● DC형 퇴직연금과 IRP 적립금은 2020년에 전년말 대비 16%, 36%씩 증가했으며, 2021년 2분기말 현재 반기 동안에도 각각 6%, 19% 증가해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IRP의 성장세는 유독 가파른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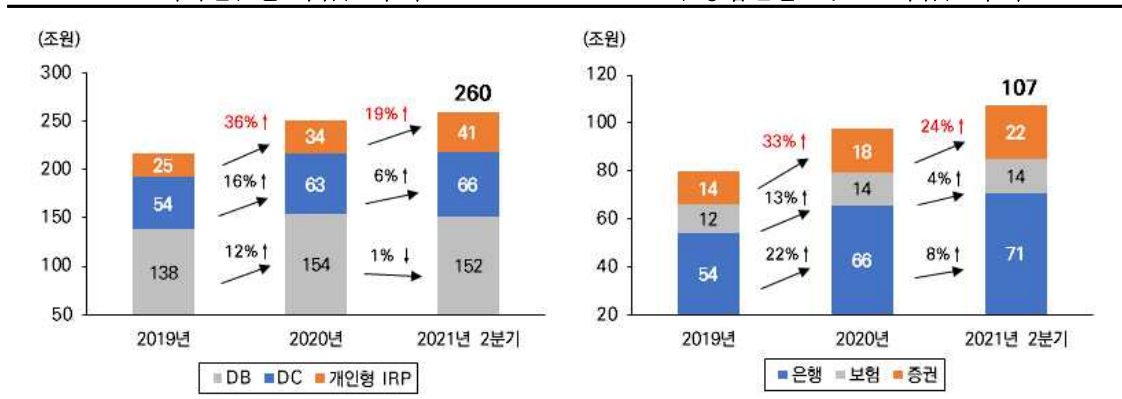
- 2021년 2분기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미포함 기준 총 260조원)은 전년말 대비 3% 증가해 시장 전체 성장세는 둔화되었음.

- 이는 퇴직연금 중 규모가 가장 큰 DB형 시장이 역성장했기 때문임. DB형의 경우 4분기에 자금유입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하나 연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도표 5>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퇴직연금별 적립금 추이>

<금융업권별 DC/IRP 적립금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IRP는 개인형 기준

- DC형 및 IRP 적립금은 66조원, 41조원씩으로 합계 107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 말 이후 반기 동안에만 각각 6%, 19% 증가해 2020년 한해 동안 16%, 36%씩 증가에 이어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IRP 적립금은 올해 상반기 들어 더욱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를 보면, 증권사의 DC형과 IRP 적립금이 은행 및 보험사와의 격차를 벌리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증권사의 DC형 및 IRP 적립금은 2020년 33% 증가에 이어 2021년 2분기 현재 24% 증가해 22.2조원(DC형 12.1조원, IRP 10.1조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은행(8% 증가)과 보험사(4% 증가) 대비 월등히 높은 성장세임.

◎ IRP와 DC형 퇴직연금 시장의 고성장세는 1) DB형 퇴직연금 대비 뚜렷하게 높은 펀드투자 비중 및 2) 他 업권 대비 증권사 계좌에서의 월등히 높은 펀드투자 비중이 그 밑바탕이 되고 있음.

- DC형 및 IRP의 퇴직연금펀드 투자 비중은 2021년 2분기 현재 19.8%, 30.7%씩으로, 3%에 불과한 DB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도표 6> 퇴직연금별 펀드(집합투자증권)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 2분기말
DB형 퇴직연금	4.7	2.8	3.0
DC형 퇴직연금	15.6	15.2	19.8
개인형 IRP	24.3	24.1	30.7

자료: 업권 교환 자료

- 특히 고성장세가 두드러진 증권사 IRP 계좌에서의 펀드투자 비중은 45.3%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27.4%, 보험사 7.7%를 압도하고 있음.

<도표 7> 금융업권별 IRP* 펀드(집합투자증권)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 2분기말
은행	22.5	23.0	27.4
보험	6.2	6.3	7.7
증권	40.3	34.4	45.3

자료: 업권 교환 자료

*: 개인형 IRP 기준

● 일반적인 퇴직연금 펀드 이외에 증권사에서 주식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점도 IRP 및 DC형 퇴직연금 중심 적립금 성장의 주요 기여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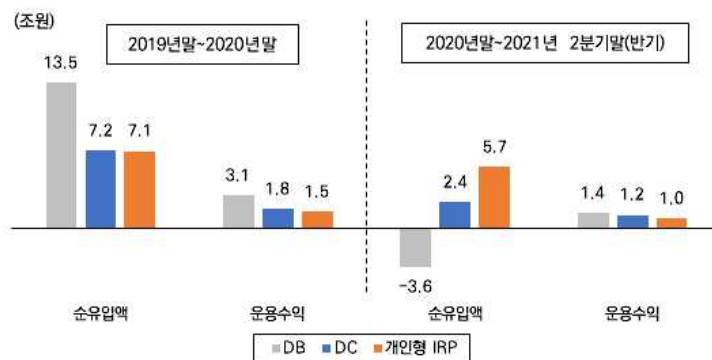
● 최근 1년반 동안 퇴직연금의 신규 운용자금은 DB형보다 IRP와 DC형에서 지속적인 유입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적립금 규모를 감안하면 IRP의 자금 순유입 강도가 두드러진 편임.

–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운용자금은 2020년말에서 2021년 2분기말 현재까지 6개월 동안 2.4조원, 5.7조원씩 순유입(신규 납입액-지급액)돼 지난해부터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20년말에서 2021년 2분기말까지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자금 순유입 강도는 기존 적립금 규모가 월등히 큰 DB형보다 두드러진 편임. DB형 퇴직연금의 자금 흐름은 2021년 상반기만 보면 오히려 지급액이 신규 납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세를 보였음.

(※ 2020년말 퇴직연금별 적립금 규모: DB형 154조원, DC형 63조원, IRP 34.4조원)

<도표 8> 퇴직연금별 적립금 중 자금 순유입액*과 운용수익 추이



자료: 업권 교환 자료

*: 자금 순유입액 = 신규 납입액 - 지급액(인출액)

● 투자 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지난 수년간 저금리 지속과 최근 1~2년간 주식 시장 강세에 자극받아 다양하게 구축된 펀드 상품군에 보다 많이 투자하려는 니즈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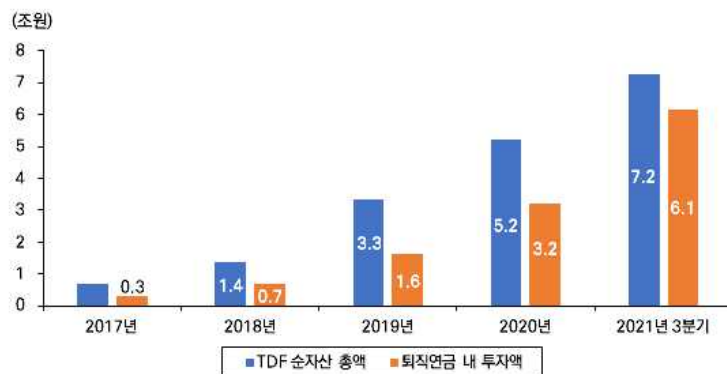
3. TDF 및 ETF 투자의 고속 성장

- 2021년 3분기 현재 퇴직연금 펀드의 적립금은 전년 말 26.6조원 규모 대비 38% 증가한 36.7조원에 달하고 있음.
- 최근 이같이 퇴직연금 펀드 투자가 활성화된 데에는 투자 편의성, 변동성 관리, 자산배분 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 상품들이 많이 도입된 영향이 지대함. 이중 TDF(Target Date Fund), ETF(상장지수펀드)의 고성장세가 크게 주목됨.

1) TDF

- TD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2021년 3분기 현재 총 시장규모는 7.2조원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최근 퇴직연금이 역으로 TDF의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목 받고 있음. 퇴직연금에 투자된 TDF 규모는 2017년 3,036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3.2조원으로, 2021년 3분기 현재에는 6.1조원으로 단기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TDF 전체 시장규모 중 퇴직연금 투자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21년 3분기 현재 85%까지 상승, TDF의 절대 비중이 퇴직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도표 9> TDF 시장 규모 및 퇴직연금 투자액 추이(순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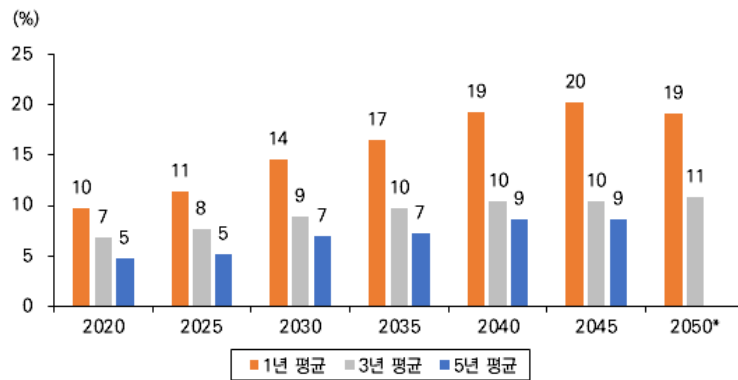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TDF는 최근 수년간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비해 안정적이며 꾸준한 투자성과를 시현하면서 퇴직연금 시장 내에서 주목받고 있음.

– 퇴직연금에서 투자한 TDF의 목표시점(Target date)별 투자성과를 보면 목표시점에 비해 향상되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며, 장기(3년 이상)와 1년 기준 평균 모두에서 안정적인 운용 수익률을 시현 중임.

<도표 10> 퇴직연금 TDF의 목표시점별 운용 수익률(2021년 3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 펀드의 설정연도가 대체로 최근인 관계로 5년 평균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았음.

● TDF는 자산배분 자동변경 및 재조정(rebalancing)과 글로벌 분산투자 기능, 100% 편입 가능 등 장점으로 인해 퇴직연금 투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음.

2)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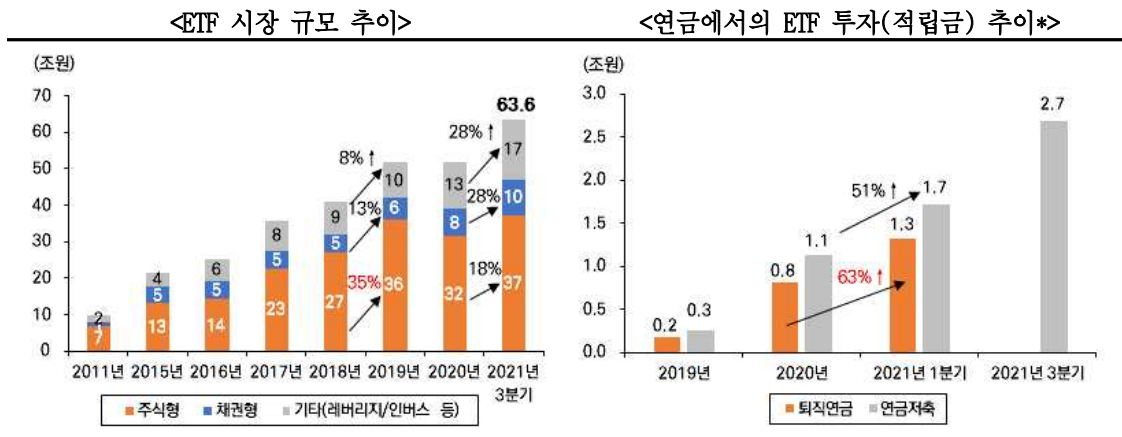
● 국내 ETF 시장은 인덱스(지수)와 개별주식 투자의 장점을 겸비하고, 성장테마형(Thematic ETF)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21%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왔음(2021년 3분기 현재 63.6조원 규모).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의 ETF 투자액(주요 증권 4개사 기준)은 2020년과 2021년 중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2019년 1,836억원에 불과했던 ETF 투자액이 2020년 8,084억원, 2021년 1분기 1조 3,204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투자하면서도 여러 자산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의 편의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어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도표 11> ETF 투자 현황



자료: 금융투자협회, 업권 교환 자료

*: 증권 4개사(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한국투자) 기준

3) 주식형 펀드 및 부동산 펀드

- 퇴직연금 펀드 중 주식형(주식혼합형 포함) 펀드 적립금은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익률도 대폭 향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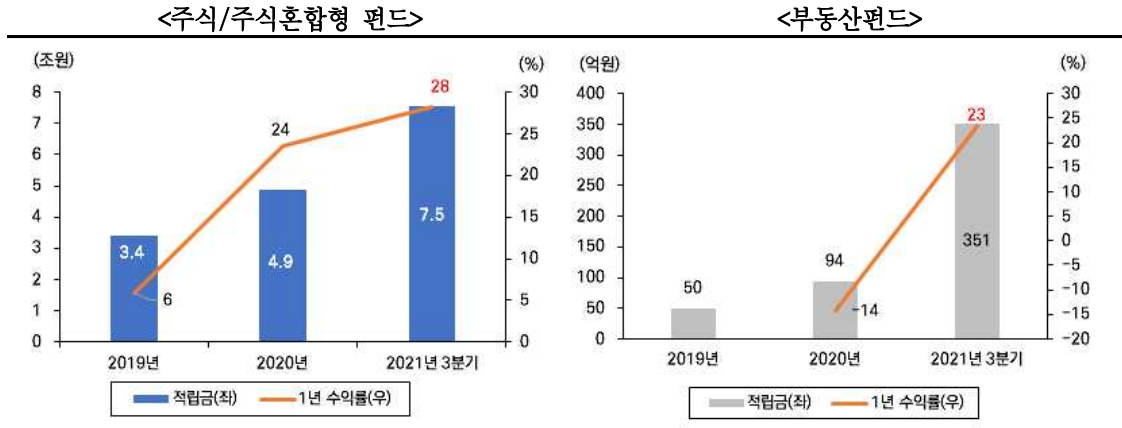
- 2021년 3분기 현재 퇴직연금 펀드 중 주식형 펀드 투자액은 총 7.5조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19년 3.4조원, 2020년 4.9조원에 이어 올해 대폭적으로 성장한 규모임.

- 퇴직연금 펀드 중 주식형 펀드의 1년 평균 운용 수익률은 2019년 5.9%에서 2020년 23.5%, 2021년 3분기 28.3%로 크게 상승했음.

- 국내주식 중심에서 해외주식 중심의 글로벌 펀드로 상품군이 확대됨에 따라 주식형 펀드의 퇴직연금 펀드 내 비중은 2019년 14.8%에서 2021년 3분기에 20.5%로 뚜렷하게 상승했음.

- 부동산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절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2021년 3분기 현재 전년 말 대비 3.7배 급증하였음. 향후 상장리츠 도입 본격화와 함께 퇴직연금 내에서의 투자 저변은 급격히 확대될 조짐임.

<도표 12> 주요 퇴직연금 펀드 투자 현황



자료: 금융투자협회

4. 글로벌 펀드 투자비중 확대

◎ 퇴직연금 펀드 투자에서는 투자 상품 다변화 뿐 아니라 해외 자산을 주요하게 편입하는 글로벌 펀드의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투자지역 확대 추세도 전개되고 있음.

— 퇴직연금 펀드 투자에서는 국내자산을 100% 편입한 국내펀드의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해외자산을 주요 비중으로 편입하는 글로벌 펀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퇴직연금 내 글로벌 펀드 투자액은 최근 약 4년간 연평균 50.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7년 3.7조원에서 2021년 3분기 현재 17.2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음.

<도표 13> 주요 퇴직연금 펀드별 적립금(순자산) 추이

(단위: 억원, %)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 3분기말	연평균 성장률 (2017~2021년)
퇴직연금 펀드	190,487	213,992	231,650	266,092	367,316	19.1
1) 국내펀드	153,552	168,536	168,637	168,078	194,849	6.6
2) 글로벌 펀드	36,935	45,456	63,012	98,014	172,467	50.8
- 해외자산 60% 이상 편입한 글로벌 펀드	14,321	20,673	30,768	52,515	98,440	67.2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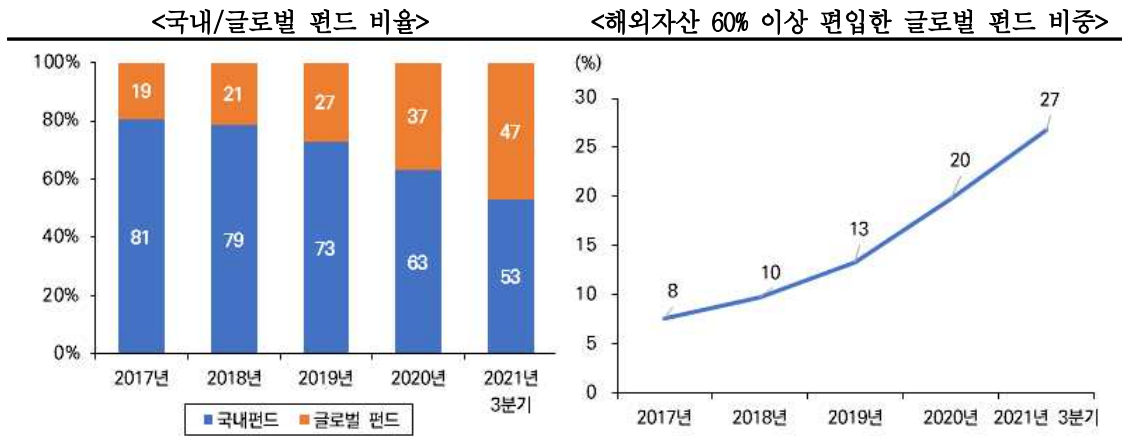
• 퇴직연금 펀드 투자에서 국내와 글로벌 펀드의 비율은 2017년 81 대 19에서 2021년 3분기 현재 53 대 47로 크게 변화된 상태임.

– 글로벌 펀드 중 해외자산을 60% 이상 편입하는 펀드는 성장세가 더욱 가파른 편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67.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해외자산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글로벌 펀드는 2020년 5.3조원에서 2021년 3분기 현재 9.8조원으로 늘어나, 올해 들어 매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해외자산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글로벌 펀드의 퇴직연금 펀드 내 비중은 2019년 13%, 2020년 20%에서 2021년 2분기말 현재 2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도표 14> 국내펀드 및 글로벌 펀드의 퇴직연금 펀드 내 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 글로벌 펀드는 국내펀드에 비해 장기 수익률이 양호하며, 해외자산을 60% 이상 편입한 경우 등 글로벌 자산분산 효과가 큰 펀드일수록 장기적으로 탁월한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해외자산을 편입한 글로벌 펀드와 해외자산을 60% 이상 주요한 비중으로 편입한 글로벌 펀드의 5년간 평균 수익률은 각각 7.9%, 10.1%로 국내펀드의 5.9%를 크게 상회하여, 글로벌 자산분산 효과가 클수록 장기적으로 양호한 투자성과를 보여줌.

<도표 15> 주요 퇴직연금 펀드별 장기 평균 수익률(2021년 3분기말 현재)

(단위: %)	펀드 전체	글로벌 펀드	해외자산 60% 이상 편입한 글로벌 펀드	국내펀드
5년(누적)	38.9	47.7	61.8	33.1
5년(연환산)	6.6	7.9	10.1	5.9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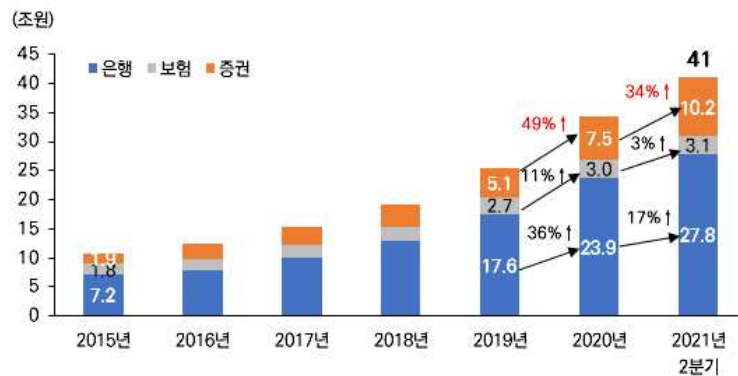
- 퇴직연금 펀드 투자에서는 5년 이상의 장기적 성과 격차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글로벌로 투자지역의 다변화 및 자산분산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판단됨.

5. IRP 전성시대 개막

- 최근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주도하는 것은 올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RP 시장으로, 총 적립금은 지난해 말 30조원대 초반에서 올해 상반기 만에 40조원을 빠르게 돌파했음.
- IRP 시장을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성장세가 유독 강세로, 증권업권의 IRP 적립금은 2021년 2분기 현재 전년 말 대비 34% 성장한 10.2조원에 이르고 있음.

— 증권업권의 IRP 적립금은 2019년말 5.1조원에서 2021년 2분기말 현재 10.2조원으로 2배 늘어나 최근 1~2년간 은행 및 보험업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도표 16> 금융업권별 IRP 적립금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증권사가 IRP 시장의 성장 돌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우수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이 은행과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임.

— 증권사 IRP 계좌의 실적배당상품 1년 평균 수익률은 2021년 2분기 중에 20%에 진입해 2020년에 이어 또 다시 큰 폭으로 향상됐음은 물론 은행 및 보험사 대비 지속적인 비

교우위를 보이며, 월등히 높은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52%)을 확보하고 있음.

<도표 17> IRP*의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 및 수익률 추이

(단위: %)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			실적배당상품 1년 평균 수익률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 2분기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 2분기말
은행	22.5	23.0	27.4	6.4	13.2	19.6
보험	10.4	10.8	13.0	5.2	12.2	18.7
증권	44.0	44.6	52.1	7.9	13.2	20.0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기준

◎ IRP로의 자금 순유입액(신규 납입액-지급액)은 최근 1년반 동안 총 12.8조원으로 기존 적립금이 더 큰 DC형 퇴직연금(9.6조원)보다 훨씬 많았고, 2021년 상반기 동안 DC형 퇴직연금보다 2배 이상 많은 5.7조원의 자금이 순유입되었음.

◎ 특히 금융투자업권인 증권사 IRP로 순유입된 자금 규모는 2020년 1년간 1.8조원, 2021년 상반기 중 2.2조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상반기 중 증권사로 유입된 신규자금은 총 3.3조원으로, 지난해말 7.5조원 수준이었던 기존 IRP 적립금 규모 대비 43% 비중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임.

<도표 18> DC, IRP 순유입자금 및 운용수익 <도표 19> 증권사 IRP 순유입자금 및 운용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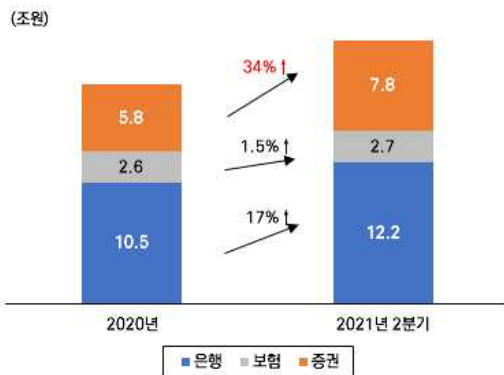
자료: 업권 교환 자료

* 순유입자금 = 신규 납입액 - 지급액(인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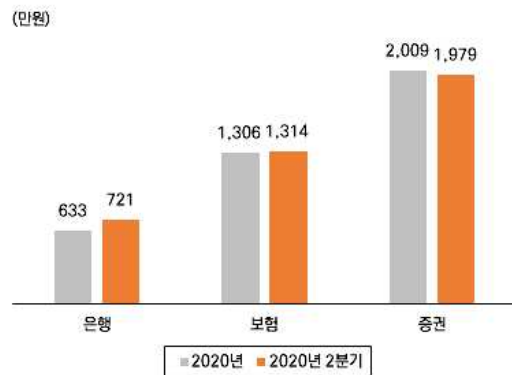
◎ 증권사의 IRP 계좌 성장과 관련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투자 상품군을 통해 가장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목돈이 이체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임.

- 증권사 IRP 계좌의 적립금 중 종전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급여의 이전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2021년 2분기 현재 전년 말 대비 34%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증권사 IRP 전체 적립금 중 77%를 차지함(은행업권 적립금의 퇴직급여 이전 금액 비중은 44%).
- 증권사의 IRP 계좌당 평균 적립액 규모는 2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은행과 보험사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사 IRP로 목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는 DB형 퇴직연금이나 가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운용의 제약이 생기는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로 운용의 제약이 거의 없는 증권사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도표 20> IRP* 적립금 중 퇴직급여의 이전 금액



<도표 21> IRP* 계좌당 평균 적립금



자료: 업권 교환 자료

*: 개인형 IRP 기준

◎ IRP의 성장이 사적연금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은 다음과 같이 판단됨.

- 경제 저성장과 은퇴 후 노후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민연금 및 기존 퇴직급여만으로는 부족한 연금자산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사적연금 계좌에서의 장기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면서, 절세 혜택이 추가되는 IRP가 대표적으로 장기투자 및 글로벌 투자 용 계좌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III. 결론

-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1~2년간 저금리 기조 심화, 국내외 주식 시장 강세 등은 국내 금융투자 및 퇴직연금 운용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및 2021년 퇴직연금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퇴직연금 시장 및 운용 환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퇴직연금 운용의 5가지 핵심 변화>

핵심 변화 이슈	주요 내용
① 제도간, 금융업권간 수익률 격차 확대	1) 2021년 2분기말 1년 평균 운용수익률, DC형 및 IRP 5%대로 DB형(1.9%) 압도 2) 금융투자 업권인 증권사의 퇴직연금(DC/IRP) 계좌 수익률(9.7%)이 他 업권 압도 ← 주식 강세장 형성 및 자산배분 변경(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 상승) 영향
②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동	1) DC, IRP 적립금, 2020년 16%, 36% 증가, 2021년 2분기말 현재 6%, 19% 증가, 고성장 지속 2) 이중 증권사 DC/IRP 적립금은 2020년 33%, 2021년 2분기말 현재 24% 증가해 은행, 보험사 성장을 압도 3) DC, IRP 중심 자금 순유입 두드러진 편, 특히 투자 상품 운용이 가장 활발한 IRP로 2020년 7.1조원, 2021년 2분기중 5.7조원의 대규모 운용자금 순유입
③ TDF 및 ETF 투자의 고속 성장	1) TDF의 퇴직연금 내 투자액은 2017년 3,036억원에서 2021년 3분기말 6.1조원으로 폭발적 성장세, 퇴직연금 투자는 전체 TDF의 85%로, TDF 시장성장 주도 2) ETF(상장지수펀드) 연금계좌 투자액의 고성장세가 두드러짐. 퇴직연금 투자액은 2019년 1,836억원에서 2021년 1분기말 1.3조원으로 급성장 ← 투자 편의성, 변동성 관리, 자산배분 등에서 장점 지닌 투자 상품 크게 각광
④ 글로벌 펀드 투자비중 확대	1) 퇴직연금 내 글로벌 펀드 투자 비중, 최근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국내펀드와의 비율이 2017년 81대19에서 2021년 3분기말 53대47로 급변 2) 해외자산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글로벌 펀드는 10%를 상회하는 장기(5년) 연평균 수익률 등에 힘입어 퇴직연금 펀드내 비중이 4년 동안 19% 포인트 상승 ← 국내 집중투자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다변화된 투자자산 배분의 활성화 조짐
⑤ IRP 전성시대 개막	1) IRP 적립금은 2020년말 34.4원에서 2021년 상반기 만에 41조원 규모로 성장 2) 이중 금융투자업권인 증권사 계좌 적립금은 2019년 5.1조원, 2020년 7.5조원 2021년 2분기말 10.2조원으로 1년반 동안 2배 성장 ← 증권사 IRP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은 52.1%로 他 업권 압도, 고수익 실현 3) 증권사 IRP로 최근 6개월 동안 2.2조원 자금 순유입, 퇴직급여액 이전분 급증세 ← 스스로 노후 연금자산 축적 및 세제 혜택, 장기투자, 자산배분 관련 니즈 증가

- 고령화 사회와 저성장, 저금리 추세에서는 장기간의 근로소득 중 일부를 연금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
- 이러한 퇴직연금의 운용은 장기투자, 글로벌 분산투자 등을 통한 자산배분에 중점을 두어 실행해야 함.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개인의 금융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이 최근 연금 자산 운용 및 자산배분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평가됨.
 - 미국은 1980년대 초반 시작된 장기적인 금리 하락세와 주식 시장 추세적 강세를 계기로 DC형 퇴직연금인 401k가 도입되고, IRA(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등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장기 성장 기반이 구축되었음.
 - 1980~1990년대에는 주식형 자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TDF, Balanced Fund 등 자산배분형 장기투자 펀드, 채권 및 배당 펀드 등에 분산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장기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구조적 경제사회 환경 변화(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4차산업 중심 기술변화 등)에 대응해 장기투자와 자산배분의 관점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질적 변화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됨.
- 향후 퇴직연금 운용에서는 TDF, ETF, 글로벌 펀드 등 투자 편의성, 변동성 관리, 자산배분 등에 유용한 장기투자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기관들은 안정적 장기 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투자 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40]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7
- [41]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
-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
- [43]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2019.11
- [44] 초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 5대 전략, 2019.11
- [45]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관리, 2019.12
-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 [51]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

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